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4권 제3호(2020년 12월) doi : 10.25153/spkom.2020.24.3.002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0 ; 24(3) : 15-25 pISSN : 1226-7066 eISSN : 2713-9360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김동수[1)] · 이은희[2)] · 최문석[3)4)]*
[1)]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행정원
[3)]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4)] 남북전통의학비교용어집 편찬위원회 위원장

Standardizing of Medicine Termi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Future Management Plan

Dongsu Kim[1)], Eunhee Yi[2)], Moonseok Choi[3)4)]*
[1)]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 KM Policy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4)] Compilation Committee for the Comparativ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in South and North Korea

Abstract

Background :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essential for the engagemen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the two Koreas have been divided for 70 years where Korean evolved differently within the two countries. This created a gap in the most basic found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language. Foster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traditional medicine field requires a higher understanding of the specialized traditional medicine terminologies.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a future management plan for the "Comparativ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in South and North Korea," providing a foundation for standardizing Korean medicine terminology of the two Koreas.

Methods : The study collected case studies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management and standardization from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bsites and documents. It provided future terminology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is data.

Results : The project for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4 stag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first step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erminology standardization." The second step is "term comparison." I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hird step will be to promote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project through Inter-Korean dialogue. Finally, after incorporating discussion on terminology standardization, the Inter-Korean Medicine Terminology can be published.

Conclusions : This requires a system to support and facilitate Inter-Korean medicine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support system that can provide results in a timely fashion by training relevant

• 접수 : 2020년 11월 23일 • 수정접수 : 2020년 12월 11일 • 채택 : 2020년 12월 17일
*교신저자 : 최문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전화 : 02-2657-5011, 전자우편 : doctor@live.co.kr

experts,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communicating with experts in the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This system will be able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project.

Key words : North Korea; South-North Cooperation; Koryo Medicin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 서 론

전통의학 분야는 민족 고유의 학문으로 남북 양측 간 이질감이 없고 인도주의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아이템이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선도적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북 전통의학 교류 · 협력은 2001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2008년까지 13차례 방북과 다양한 물품 지원, 공동 행사 등으로 협력해 왔다.

원활한 남북 간 교류 ·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70년 이상 완전히 단절된 형태의 분단은 상호간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언어를 다르게 변화시켰다. 언어는 그 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면서 변화하고 사라지며, 또는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용어에서보다 전문용어에서 더 심각하다[1]. 전통의학 관련 어휘도 한자 어휘의 음독 방법, 우리말 변환 방법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다[2]. 따라서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향후 통합을 위해서는 전통의학 전문용어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된다. 더군다나 전통의학은 남과 북 모두 실용학문으로 일반국민들도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남북 교류 ·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남북 간 용어를 이해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03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13개 분야 22만 건에 대해 '남북과학기술용어집'[3]을 편찬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정보(최기선 외, 2006)[4], 전력(김호용 외, 1999)[5], 광물(고상모 외, 2017)[6], 철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8)[7], 천문(양홍진 외, 2019)[8], 지질학(김정률, 최근수, 2003)[9]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1996년 남북의 의학용어 비교 사전을 편찬하였다[10].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월 17일 국회 포럼을 통해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의학 분야 이외에도 치의학 분야에서 치의학 용어[11], 치주과학 용어[12]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간호학 분야에서도 간호학 용어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13].

그러나 전통의학 분야는 남북 교류 ·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용어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0년 1월 「남북 전통의학 용어사전 편찬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 전통의학 용어사전 편찬 연구」가 추진됨에 따라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이를 위한 향후 용어 관리 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남북 전통의학 용어 관리의 필요성

1) 남북 전통의학 교류 · 협력 과정에서의 필요성

남북 전통의학 교류 · 협력은 2001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가 어려워진 2008년까지 약 8년간 13차례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물품 지원을 통해 협력해 왔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남북 전통의학 교류에 대한 모색이 다시 시작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8년 이후 두 차례 방북을 하고 남측의 남북교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전통의학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통의학 분야는 민족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성격이라는 점과 함께 2008년 이전에 침 공장 설립, 고려약 공장 설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 ·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남북 관계가 호전된다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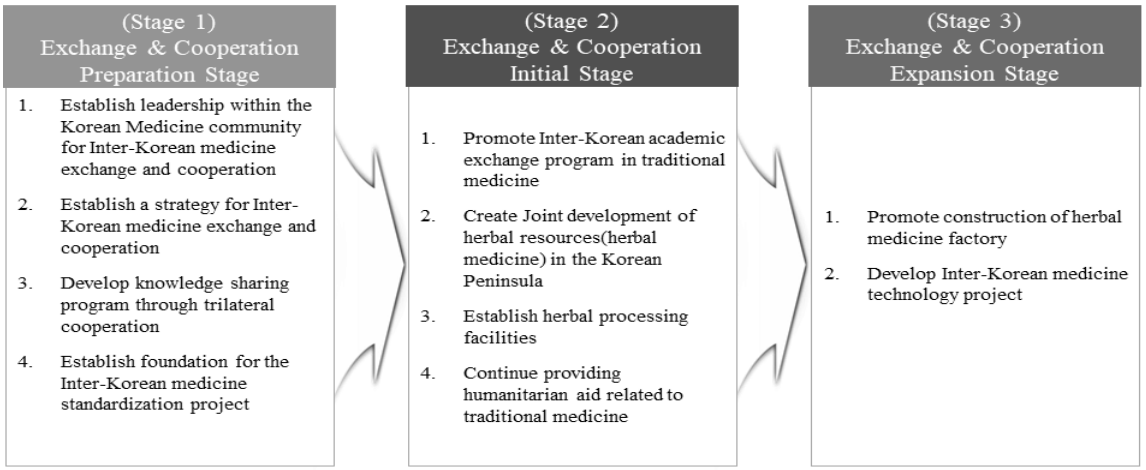

Figure 1. A step-by-step plan for the Inter-Korean Medicine Exchange and Cooperation (Kim DS, Oh JH et al, 2020)

통의학 분야의 교류 · 협력은 준비의 여유가 없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교류 · 협력이 원활하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용어 연구와 관리를 통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0년 남북 전통의학 교류 · 협력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 전통의학 교류 · 협력을 남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은 교류 ·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준비단계에 제시되었다(Figure 1 참조). 이는 다른 교류 · 협력 사업에 앞서 남북 상호간 용어에 대한 이해와 표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보고서는 이후 교류 · 협력이 본격화되면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학술 교류, 산업 협력, 인도적 지원이다. 용어 관리는 학술 교류와 산업 협력 과정 모두에서 요구된다.

학술 교류는 공동 학술토론회, 남북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학술 교류를 위해서 경혈, 한약재, 한의학 이론 등의 기본 용어가 얼마나 통일되어 있는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측의 특정 경혈 위치가 남측에서는 다르다면,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방법론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연구 환경이 많이 달라 방법론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남측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2차 데이터 활용 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등이 북측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14]. 이러한 상이한 연구 환경으로 인해 각기 다른 용어들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협력 과정에서는 한약자원 공동개발,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등 한약재와 관련된 협력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과 북이 의미하는 한약재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어 관리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0년 1월에 「남북 전통약재 기원사전」을 발간하여 남과 북의 공정서 내에 있는 한약재를 비교 ·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의 공정서는 한약재의 이름을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동시에 기재하는 등 남의 공정서 기재 방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수록되어 있는 한약재 종류도 많은 차이를 보여 남북간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2) 보건의료 통합과정에서의 필요성

교류 · 협력이 심화되면 통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건의료 통합이 진행될 것이다. 보건의료 통합은 제도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용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동일 용어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표준화로 나아가야 한다. 학술 교류 단계에서는 상대의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이나, 제도가 통합된다면 행정적 관리를 위해 의료행위가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혈, 이론, 행위 정의 등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통

합 과정에서 교육 통합과 면허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이 통합된다면 동일한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단일한 용어 기준이 필요하다. 면허 통합의 측면에서도 남측 의료기관에서 북측 의료인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용어 표준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3) 일반 국민 활용 측면에서의 필요성

의학 용어는 질환명 등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서 활용하며, 특히 전통의학 용어는 더욱 그렇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서도 남북 전통의학 용어 관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북측 한약재가 수입되어 들어온 경우 남측과 다른 한약재 이름의 북측 한약재를 상인 또는 일반 소비자가 오해하여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측의 다양한 민간요법 책자와 정보들이 남측으로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용어 차이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

2. 타 분야의 남북 용어 관리 사례

1)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북 간 용어를 교류하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다. 2004년 1월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시작된 사업은 그 해 3월 상호 의향서를 교환한 이후 2005년 2월 사전 편찬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표하였다[15]. 2005년 8월 제2차 남북 공동 편찬위원회에서는 '공동 편찬요강'을 합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 해결한 통일 지향적인 사전'을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뜻풀이를 넘어 단일화를 목표로 한다. 겨레말큰사전은 북측의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초로 어휘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단일화한 약 30만개의 올림말을 가진 대사전으로 규정된다[15].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원래 편찬 목표였던 2014년을 5년 연장한 2019년에도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간 내 사전 편찬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대영[15]은 기간상의 한계, 정치 상황의 의존성, 남북 어문 규범 합의의 난항, 인력 부족과 내부 연구조직의 미비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의 상설화, 남북 상설 편찬사무소 설립, 편찬 방향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요강'에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올리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영역별로 선별한다.'라고 하여 사전이 전문용어보다는 일상용어 중심임을 밝혔다[15].

2)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북의 전문용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북측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남북 용어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남과 북의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과정까지 진행된 예는 없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용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2019년 「과학기술 전문용어 남북 비교 체계화 및 용어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전문용어 비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연구에는 남북 과학기술 용어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 또한 표기 형식 지침을 통일적으로 제시하였고 ICT 전문용어를 대표 사례로 하여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방법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16]. 내용 중 남북 전문용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교 유형을 분류하여 비교 지침을 마련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전문용어 비교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향후 전문용어 비교 시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KISTI는 또한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웹사이트[a]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용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구축된 전문 분야는 정보약기, 정보, 건축, 금속, 수학, 농학, 축산, 임학, 생물, 지질, 화학, 지리, 경공업, 역학, 의학, 원자력, 전기, 전자, 물리 등이며 한의학(고려의학)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3) 의학 분야

남북의 의학용어를 처음으로 비교한 연구는 1992년

a) http://www.nktech.net/inform/term/term_l.jsp

Table 1. Research on the systematic comparison of North-Sou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ology and management of terminology

Type	Contents
Type AA	· Specialized terminolog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the same form; there may be slight difference in definition despite same form
Type Aa	· Specialized terminolog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forms due to linguistic norms * Difference in linguistic norms: spaces, initial law, insert 'ㅅ,' foreign language notation
Type AB	· Specialized terminolog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forms with some terms have partially same forms and others having totally different forms

Source: This contents of this table has been reorganized based 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Research on the systematic comparison of North-Sou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ology and management of terminology. 2019.[16]"

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1996년에 '남북한 의학용어'라는 용어집이 발간되었다[17].

'남북한 의학용어'는 최초이자 유일한 의학 분야 남북 용어집이다. 용어집의 비교 형태는 남측 용어와 북측 용어를 영어 용어 기준으로 다른 설명 없이 나열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독자가 남북 간 용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며, 북측의 용어가 다른 경우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어집은 용어 비교에 앞서 남북한 의학용어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측의 임상 의학용어가 남측과 다른 특징으로 쉬운 우리말의 사용, 일본식 용어 해석에 따른 남측 용어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말 사용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남북 서로의 번역이 뛰어난 경우, 한의학용어의 사용, 사회주의적 의학용어 사용, 치료 및 첨단 분야 용어의 부족을 꼽았다. 이 중 한의학 용어에 대해서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대한의사협회, 1996).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어사전 편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훈[17]은 편찬사업을 소개하는 글에서, 용어사전의 성격을 첫째 남북 보건의료인·의학 연구자를 위한 특수 사전, 둘째 남북 의학용어의 통합 사전, 셋째 남북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사전, 넷째 의학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한 사전, 다섯째 종이사전과 웹사전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남북의학용어사전은 이전 용어집이 남북 용어의 단순 비교였던 것과는 달리 용어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훈(2019)은 이러한 남북의학용어사전의 편찬 단계로 1단계 남북 의학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2단계 남북의학용어집 발간, 3단계 남북의학용어 통합안 마련, 4단계 남북의학용어사전 출간 및 보급을 제시하였다.

의학용어 외에도 남북측 치의학 용어를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11,12]. 허진영[11]은 비교 결과 남북이 아직도 분단 이전 한자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가 안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김인숙[13]은 북측 간호학 용어 약 800여 단어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간호학 용어를 비교한 결과 치의학 용어 비교와는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았다고 결론지었다.

3. 전통의학 분야 용어 국제 표준화 현황

한의학을 포함한, 중의학 등 전통의학 분야 용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은 한·중·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도 진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WHO ICTM 프로젝트와, ISO TC249 프로젝트 활동이 대표적이다. 국제적으로 전통의학 분야 용어가 표준화 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남북간 용어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게 표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화 상황을 눈여겨보며 남북간 용어 표준화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WHO ICTM

WHO ICTM(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 국제 분류 체계)은 전통

의학의 국제표준용어를 근간으로 국제적 분류체계를 만들고, 일부 구성요소인 병증진단분류체계를 WHO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포함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전통의학 챕터 개발은 2006년 WHO/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서태평양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착수됐으며, 이후 2010년 전통의학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지원을 통해 본격 추진돼 2018년 6월 전통의학 챕터 배포버전이 완성됐고 연례총회에서 공식 승인됐다. 그 성과로, 2018년 WHO ICD 11차 개정판 내 전통의학 챕터가 신설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전통의학 관련 통계정보를 정책 수립, 보험보장 범위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WHO ICD 11차 개정판은 2022년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전통의학 챕터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ISO TC249

2009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49)가 설립되었고, 용어 표준화를 위한 전통의학 용어 및 의료정보 작업반(Working Group 5, Terminology and informatics) 활동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용어작업반의 활동범위(Scope)는 “Standardization of TCM nomenclatures, terminology, classification and ontology.”로, 전통의학 분야 기술 표준 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개발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각종 한약재를 시작으로, 방제 코딩 시스템, 임상용어 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한의약 임상용어구조를 비롯하여,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4건,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2건의 용어 표준을 발간하였다.

Ⅲ. 고 찰

1. 선행연구

현재까지 전통의학 분야의 남북 용어를 비교한 연구는 이경미[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경미는 남과 북에서 각각 번역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국역본을 중심으로 용어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침구목록에 수록된 258개의 침구명 중 남과 북이 상이한 용어는 31개이며, 57개의 병문(病門)은 29개가 달랐다. 그 외에도 처방 명, 무게 단위 명칭, 신체 부위 명칭 등에서 남과 북이 차이가 났다. 저자는 북 전통의학 용어의 특징으로 병문(病門), 처방 명, 단위 명을 우리말로 풀어쓴 점, 병증문에서 남측이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표현을 쓴다는 점, 본초명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신체 부위에서의 이질화는 심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 용어 비교는 아니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0년 1월에 남과 북의 전통약재 기원을 비교한 「남북 전통약재 기원사전」을 편찬하여 한약재 명칭과 기원이 얼마나 상이한지를 보고하였다.

2.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의 추진전략

1) 사업의 성격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은 전통의학이란 특성과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용어의 이해와 수집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의 전통의학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 전통의학 용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사업 초기에만 필요한 과정은 아니며 북 전통의학에 대한 다양한 학술 문헌과 기타 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교 용어집 편찬을 위해 북의 고려의학대사전 용어를 기초 자료로 삼고 있으나 향후 고려의학 전문 학술잡지인 ‘고려의학’이나 북의 학술용어집인 ‘거울 2.0’ 그리고 이외에 교과서, 노동신문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화를 지향한다. 전통의학 용어의 특성상 남과 북 모두 고전 문헌의 용어에 기반하고 있어 용어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전 문헌의 용어는 현대화되어 표준화된 정의가 필요한데 아직 세계적으로 공통된 표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

과 북 또한 용어의 기준과 정의가 많이 다를 것이다. 이는 다른 많은 분야의 전문용어 비교 시, 영어 명칭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들과 다른 점이다. 예를 들면 같은 경혈 명칭이라도 그 위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질환명이나 행위명이라 할지라도 그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전문용어의 사용은 보다 엄밀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 전통의학 용어 관리는 결국 남북 용어 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통의학 표준분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표준을 이룬다면 세계 전통의학 표준에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의 전통의학 범주 내에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 의학 용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요법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북은 일차의료의 70%를 고려의학으로 제공한다고도 알려져 있을 만큼[14] 일반 국민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이 높다. 남측 또한 일반 국민들이 한의학과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남북 전통의학 용어는 전문가를 위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국민들에게도 서비스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남북 철도용어 비교사전을 편찬하여 대중적인 검색엔진(NAVE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b]. 향후 이러한 대중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

넷째, 남북 간 협의가 없어도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대부분의 남북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남북 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계에서 진행해왔던 남북 사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 중심으로 남북 사업을 관리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남측에서 남북 용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겨레말큰사전 같은 잘 알려져 있고 대규모의 사업에서도 사업이 상설화되지 못한 측면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꼽고 있다[15]. 그러나 용어 관리만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 · 협력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이를 결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북측 자료를 통해 용어를 수집하고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섯째, 남북 간 협의가 가능한 시점을 위해 사전에 최대한의 준비를 갖춘다. 남북 간 협의가 없어도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업이 목표한 바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시점을 계획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남북 간 협의를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이 갖추어지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 시점에 남북 간 합의서 교환 및 실무회담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전략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볼 때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은 교류 · 협력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 단계이다. 용어 표준화 사업이 남북 공통 용어 사전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전통의학과 사전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이 한의계 내외에서 다양한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 전통의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타 학문 분야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재원이 필요하다. 결국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전문성, 정보교류,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에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기구가 설치된다면 기구를 중심으로 남북 용어 database를 구축하고 용어 표준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 용어 database는 초기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의 자료를 확보하여 보충하고 연구해야 하며, 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서비스되어야 한다. 북의 용어 data는 북측 사전, 학술잡지, 교재, 신문 등을 통해 확보한다. 또한, 남북의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는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용어

b) https://terms.naver.com/list.nhn?cid=64628&categoryId=6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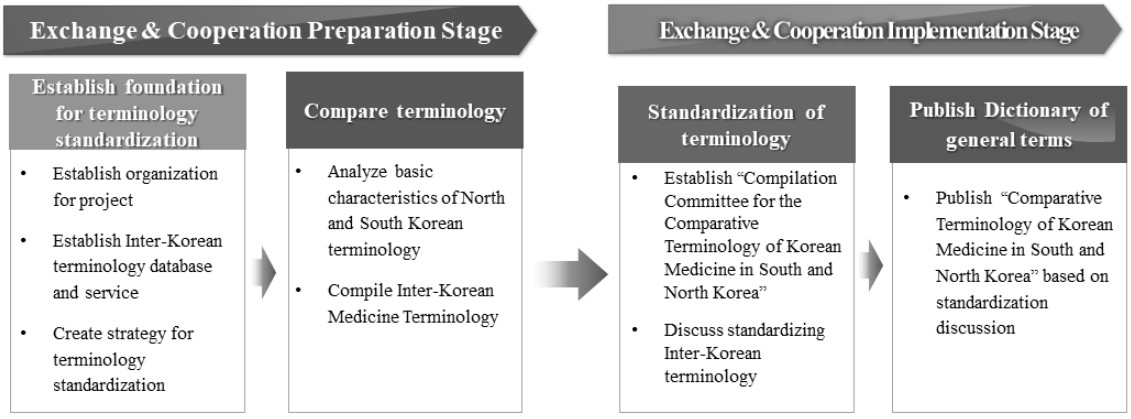

Figure 2. Compilation Stages for the Medicin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표준화 전략도 이 기구에서 진행한다. 용어 표준화 전략은 WHO와 ISO 등 세계 전통의학 용어 표준 흐름에 맞게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용어 비교' 단계이다. 구축된 북의 용어 data를 바탕으로 남과 북의 용어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이미 많은 전문 분야에서 진행했던 과정이지만 전통의학 분야는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용어 data를 충분히 구축하기 전일지라도 기본적인 용어들만으로 비교 용어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 전통의학 용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어 database 구축 시스템이나 용어 표준화 사업 방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용어집은 용어 data가 구축되는 정도에 따라 재출판을 한다.

남북 정치적 상황이 경색되어 교류·협력이 어려워진다면 이 두 가지 단계를 지속 추진하여 남북간 용어 차이와 이를 극복할 방안을 발전시켜 용어 표준화를 충분히 준비한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이 시작된다면 세 번째 단계인 남북 간 협의를 통한 '용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용어 표준화' 단계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북의 전통의학 학술단체와 용어 표준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후 남북 간 용어 표준화 협의 회의를 정례화 하여 표준안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분야별 용어를 표준화한다.

마지막으로 용어 표준화 협의를 통해 도출된 안으로 남북 공통 전통의학 용어 사전을 편찬한다.

3.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사업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의 첫 단계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0년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업의 개요는 Table 2와 같다.

두 공동 기관은 용어집 편찬 사업을 총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편찬위원회는 다시 집행위원회와 검토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집행위

Table 2. Summary of "Project for Comparativ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in South and North Korea"

Item	Contents
Title	Project for Comparativ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in South and North Korea
Organizer	Jointly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nd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udget	50 million won in total –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 20 million won –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30 million won
Duration	2020.1. ~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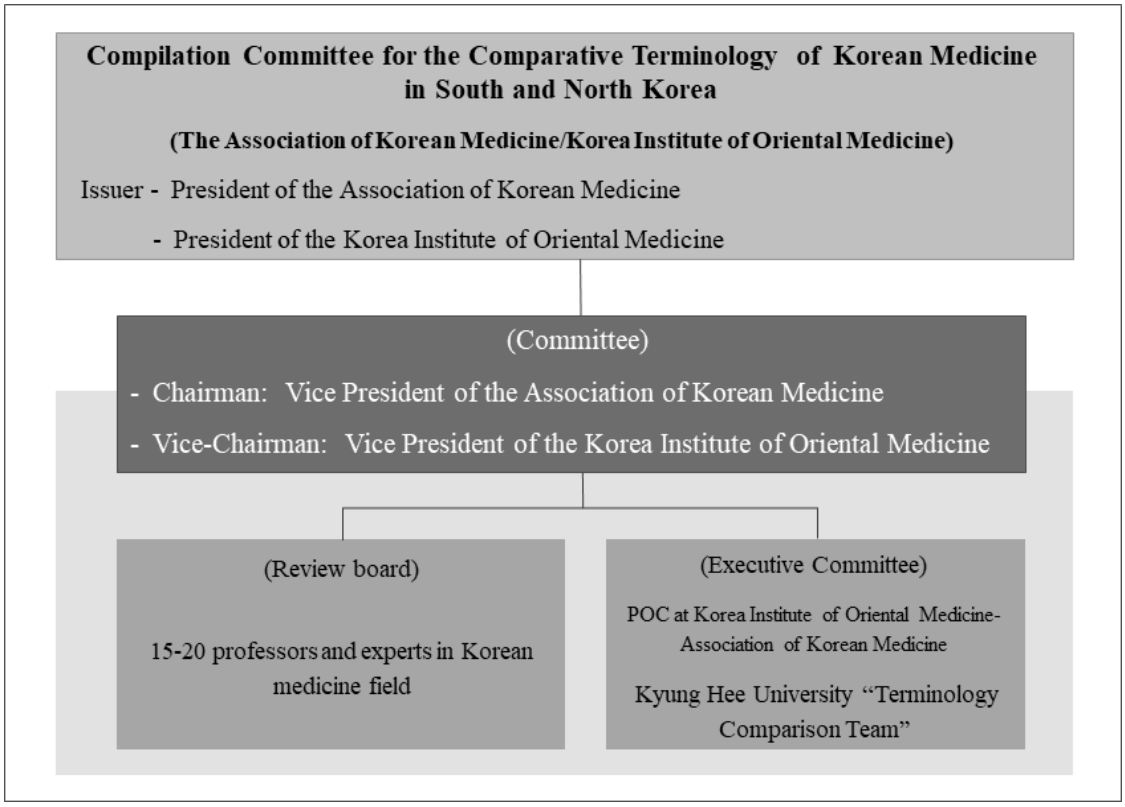

Figure 3. Project Plan for "Compilation for the Comparativ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in South and North Korea"

원회는 용어집 편찬과 관련된 행정 및 연구 지원을 하는 실무 팀과 실제 용어를 비교하는 연구팀으로 구성되었다. 검토위원회는 용어 비교 방법 및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한의학 용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다(Figure 3 참조).

본 사업은 2020년 1월 두 기관의 실무진 차원에서 기획을 거친 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상반기에는 북측의 용어 사전 자료 수집 및 정리, 그리고 남측 용어와의 매칭 작업이 이루어졌다. 2020년 7월에는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이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방법론을 논의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용어 비교 과정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비교 용어집은 2021년 2월 발간을 앞두고 있다.

Ⅳ. 결 론

남북 교류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벤트성 성과를 기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실력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긴 교류·협력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다.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이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료와 정보를 구축하며 국내 산·학·연 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남북 용어 표준화 사업 또한 이 시스템 속에서 장기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남북 연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만한 해이다. 남북 전통의학의 향후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 표준화의 일환인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사업 추진으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올해 남북 전통의학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향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이 성과가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전 민족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KSN20134244)」및「한의 정책 기반연구사업(KSN2013422)」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Han YU. Current Status and Future Works of Technical Vocabulary in South-North Korean Dictionary. New Korean Language-life, 2018, 28(4):27-52
2. Lee KM. Comparative Study on Oriental Medicine Terminology of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HyangYakGipSungBang(鄕藥集成方)』. Seoul: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02.
3.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ology Glossar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oul: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004.
4. Choi KS, Byeon JY, Shin HS, Ok CY. Standardized Information Technology Terminolog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2006;13(5): 39-44
5. Kim HY et al.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Changwon: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9.
6. Ko SM et al. Mineral Glossary: South and North Korea. Daeje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angsang National University DMR Convergence Research Center. 2017.
7.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ailway vocabulary dictionary. Gyeonggi-do: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8.
8. Yang HJ, Choi GE, Yim IS et al. Comparative Analysis of Astronom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2019;34(3):41-48
9. Kim JY, Choi KS. Comparison of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003;24(8):691-703
10. Korea Medical Association. South-North Korean Medicine Vocabulary. Academya. 1996.
11. Huh JY, Lee YO. Comparative Research on Dental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2000;38(8):741-751
12. Kim TY, Kim BS, Kim JY et al. Comparison of Periodontology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2002;32(4): 711-719
13. IS Kim, HJ Lee, IS Ko et al. Comparison of Nursing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5;48:93-100
14. Kim D, Oh JH, Lee JH, L EH, Song MH. Current Status of Koryo Medicine and Measures for South and North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itional Medicine.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20.
15. Ko DY. Direction and prospect of compiling the reunification dictionary-focus on "Gyeoremalkeunsajeon(Korean Language Dictionary)." The Society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2018;50:97-119
16.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Research on the systematic comparison of North-Sou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ology and management of terminology. Daejeon: Korea Institute of Sci-

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19
17. Kim YH. Efforts to prepare inter-Korea medical consolidation: compilation of a medical dictionary for all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9; 62(10):506-511